

채란농가 병아리 선택 품종에 우선한다.

□ 취재/김동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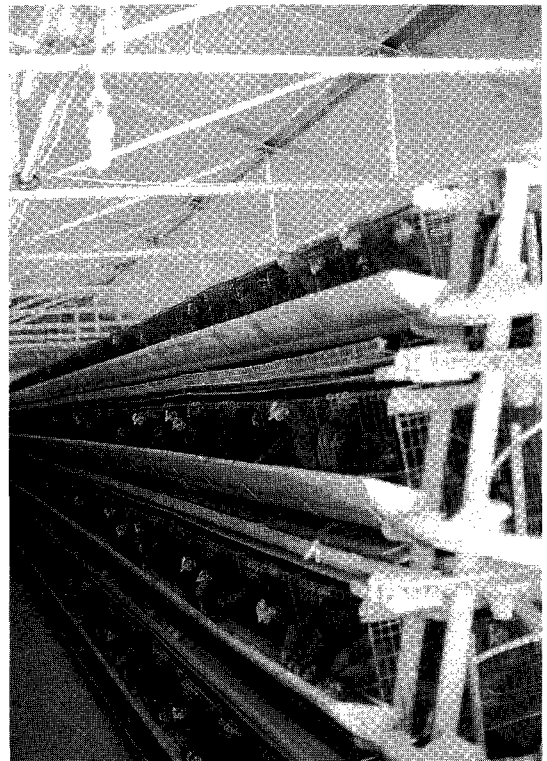
경제 위기와 가금티푸스
로 채란농장을 흔들고
있는 거대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6월 감축
한 산란계 병아리의 영향과
때아닌 계란빵의 열풍으로 인
해 그 기세가 잠시 주춤하
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
라 계란 등급별 가격차이가
특란과 소란간에 겨우 4원밖
에 차이가 나지 않는 예년에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등급별당 다운폭이 다르
다 보니 잔알이 큰알보다 비
싼 가격에 출하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채란업계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채란인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경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노
력하고 있지만 질병 등 다양
한 요인들에 의해 생산성이
나빠지고 있다는 여론이 계속

되고 있으며, 예상외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보니 노계도태
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채란업 경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지 않을까 우려
의 소리도 높
다. 따라서 본
고는 최근 채란
농가의 생산성
을 점검하기 위
해 경기도 송탄
에서 채란업을
하고 있는 한
농가를 찾아 근
황을 들어보고,
생산자들을 대
상으로 생산성
에 대한 설문
을 받아 생산
성 저하의 원
인을 분석해 보
았다.

1. 우량한 중추육성이 생 산성 향상의 초석

본지는 무창 A형 케이지 3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추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28일령된 계군모습)

동에 3만수 규모를 갖추고 있는 크로바농장(사장 김덕현)을 방문, 최근의 생산성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968년 경기도 송탄에서 200수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30여년간을 채란계에 몸을 담고 있는 김사장은 앞으로 채란업을 영위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자가육성을 통해 튼튼한 중추를 육성시켜 산란을 시키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강조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중추전문 육성농장의 확대에 의해 위탁사육과 유통을 통한 중추구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병계와 일령을 속여파는 행위, 완벽하지 못한 백신접종 등으로 농가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사장의 경우도 1994년 계사를 새롭게 신축한 이후 유통을 통해 중추를 공급받아왔으나 첫해를 제외하고는 한차례도 산란율이 90%를 올려본 일이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낮아짐을 느끼고 있으며, 한 번은 가금티푸스에 감염된 닭을 들여오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음을 회고하고 있다.

현재 산란하고 있는 6,500수 한 계군은 60주령된 계군으로 중추를 받을 때부터 상태가 나빠 30주에 산란피크가 82%에 그친 반면 60주 현재 74%를 기록하고 있어 생산성의 저하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계 폐사율은 1,500수 정도가 폐사하여 폐사율이 23%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접 자가육성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해 128일령까지 사육한 결과 월등한 효과를 가져오며 따라 이를 토대로 자가육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과거에는 백신접종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유통을 통해 닭을 사들이곤 하였지만 중량의 미달로 초산일령이 늦어짐은 물론 질병발생으로 인한 폐사율이 높아졌음을 이번 계군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부터 직접 자가사육에 들어간 6,500수에 대해 70일령까지 중추사육에 들어간 제비용을 살펴보면 수당 총 2,320원이 소요되었으며 항

목별로 보면 약품비 472원(20.3%), 병아리 800원(34.5%), 사료 1,000원(43%), 광열비 및 기타 46원(2%)으로 산출되고 있다.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편의상 계산에 넣지 않았으며, 인건비 및 용역비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한 관계로 계산에 넣지 않았지만 1일 65,000원씩 계산할 경우 약 700원이 산출되어 전체의 생산비는 3,000원 정도가 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탁을 통해 구입하는 것보다 약간 비싼 가격이다.

그러나 김사장의 경우 닭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약품비를 아껴서는 안되며 요즘처럼 가금티푸스의 위협이 가해질 때는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70일령까지 약품비로만 전체 사육비의 20%를 차지하는 약 300여만원이 소요되어 방역에 소홀한 타 농가들보다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로바 농장의 방역 프로그램을 보면 115일령까지 가금티푸스 3차(45, 70, 115(오일)일령), ND 5차(1, 21, 38, 45, 70일령), IBD 3차(10, 17, 24일령), IB 3차(1, 14, 80일령) 등 기초적인 백신(계두, AE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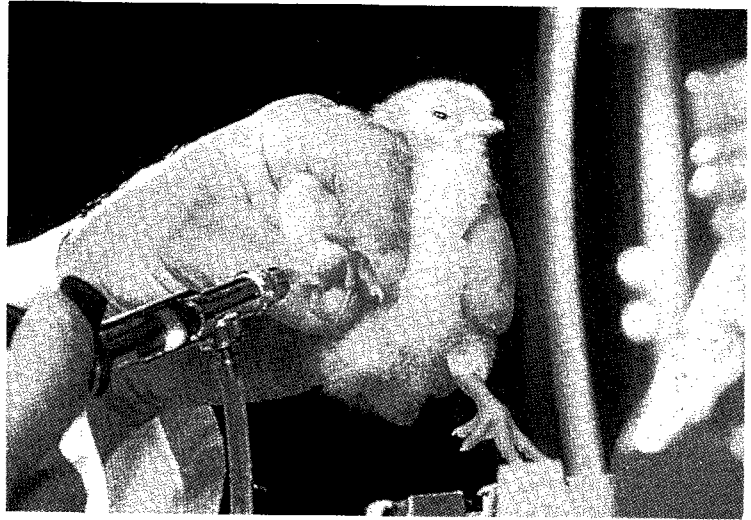
을 포함해 철두철미하게 용역을 쓰지 않고 손수 접종을 하였다. 그리고 가금티푸스가 국내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티푸스 백신을 실시해야 함도 강조하였다.

문제는 체중인데 70일령에 900g, 128일령에 1,650g으로 평균 체중보다 크게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육성 과정에서의 사양관리와 무제한 급이로 인해 체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제한 급이를 하지 않고 이처럼 크고 강하게 키운 이유로는 가금티푸스 백신(수당 0.7cc-항생제 0.2cc+티푸스백신 0.5cc)을 접종했을 경우 약한 닭이 상당수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설명하였다.

김사장은 29일령에 중추케이지로 닭을 이동시키고 79일령(평균 체중 1050g)에 성계케이지로 닭을 옮겼는데 보통 타 농장에서는 35일령에 중추케이지로 이동시키고 90~100일령에 성계사로 옮기는 것을 닭 상태가 양호해 일찍 옮길 수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크로바 농장은 1동에 1만수 사육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케



△ 백신접종은 생산성 향상의 중요한 열쇠

이지당 7수를 5수로 줄여 넣고 있다.

이는 보다 쾌적한 환경을 닭들에게 제공키 위해서이다. 김사장은 이번에 자가육성된 닭이 101일에 초산이 떨어져 보통 120~130일령에 초산이 떨어지던 과거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28일령까지의 폐사율은 30(0.5%)수에 불과해 최고 산란율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2. 생산성에 대한 설문조사

본 설문은 최근 채란농장의 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7월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 전국을 대표로 각지에서 모인 23명의 사

양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이 23명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전국에서 양계를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국내의 실정을 파악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설문은 편의상 중추육성과 성계육성 두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설문에 답한 응답자중 자체육성을 하여 채란업을 경영하는 농가들이 69%를 차지하고 있어 위탁사육이나 유통을 통해 구입한 중추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관리가 비교적 잘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가) 중추육성

①병아리 구입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부화장과 계약을 통해 구입하는 농가가 30%, 유통을 통해 구입하는 농가가 26%, 계약 없이 부화장에서 구입한다는 농가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는 부화장과 계약하여 병아리를 구입하는 농가가 3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입추할 시기에 임박해 병아리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계획성 없는 병아리 구입이 성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②병아리 선택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품종을 보고 구입한다는 농가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화장을 보고 구입한다는 농가가 30%로 나타났으나 부화장이나 유통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든지 가격을 보고 구입한다는 대답은 한명도 없었다.

① ②를 보면 대부분 사양가들은 병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무계획적으로 입추를 시키는 경향이 높아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우량한 병아리 선택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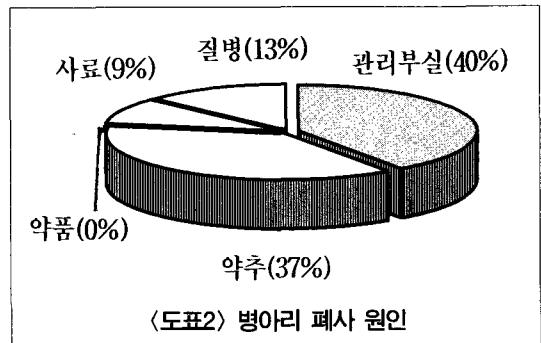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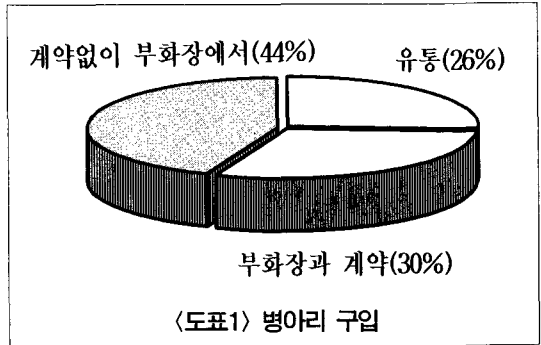
③ 목표치와 비교해 볼 때 병아리 육성시 체중(90일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상이라는 대답이 6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미달은 14%, 초과는 22%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답은 전체농가중 자체육성을 한

다는 69%의 농가에서 대부분 중추를 목표체중에 맞추면서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이나 자체육성을 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구입한 중추가 일령에 비해 체중이 맞지 않는 것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병아리 육성시 폐사율(90일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폐사율이 보통 1%~5% 범위라고 대답을 하여 평균 2.62%의 병아리 폐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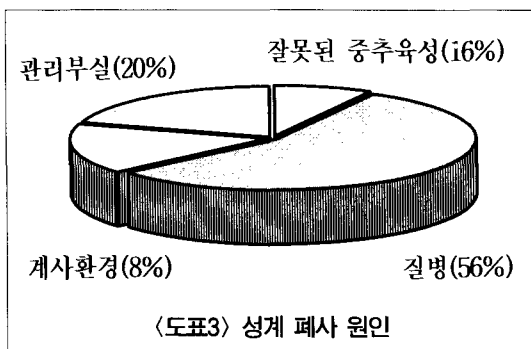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⑤병아리 폐사의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관리부실이 40%, 약추가 37%, 질병이 13%, 사료가 9%, 약품이 0%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서는 관리부실과 약추로 인한 폐사가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병아리 때에는 무엇보다 건강한 병아리 선택과 환기, 온도를 위시한 사양관리가 폐사를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나) 성계사양

잘 길러진 중추는 특별한 질병이 없는 이상 적절한 영양공급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



문제는 90%대의 산란율이 14일정도에서 끝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최고 168일까지 우수하게 산란을 지속시키는 농가

반면 성계관리시에는 20%로 낮아졌으며, 병아리때 보다 환경에 노출된 기간이 많은 산란기에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질병 등에 의해 56% 정도가 질병피해로 폐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줄 경우 우수한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①초산부터 도태시까지 평균 산란율을 묻는 질문에는 60% 이하가 5%, 60~70% 이하가 41%, 70~80% 이하가 45%, 80~90% 이하가 9%로 대답을 하였다. 이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86%가 평균 60~80% 이하의 산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70~80% 이하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가육성을 통해 사육한 농가의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 기타 농가의 관리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최근 관리해본 계군 중 90% 이상 산란지속 기간에 대한 질문에는 농가에 따라 2-24주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90% 이상 평균 산란지속기간은 11.9주(약 83일)로 나타났다.

들이 있어 소득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산란기간중 폐사율에 대한 질문에는 그 범위가 1~20%로 나타났으며 평균 성계 폐사율이 10.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계생존율로 보면 89.2%를 보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②번 질문과 같이 농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폐사가 1%에 그친 농가가 있는 반면 20%까지 폐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폐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④성계폐사의 주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질병이 56%, 관리부실이 20%, 잘못된 중추육성이 16%, 계사환경이 8%로 나타나 병아리 육성 때 보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아리 육성 기간중에는 관리부실이 40%로 가장 높게 대답한

3. 맺음말

금년도의 국내 경기가 불투명한 만큼 채란업 경기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업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년에는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들 특히 가금티푸스 근절 대책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철저한 농장관리를 위해서 사양기록은 사양관리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의 농장에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부터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농장의 성적을 세밀히 파악하고 생산성이 왜 떨어지는가의 원인을 규명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농가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양계**